
우리나라 出生性比 不均衡의 地域差異에 관한 研究

徐 文 姬

不均衡 狀態에 있는 우리나라의 出生性比는 지역적 편차를 보여 大邱를 중심으로 한 嶺南地域의 出生性比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出生減少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나타나 出生性比의 불균형이 少子女 規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 자료를 통해서 嶺南地域은 男兒選好觀이 강하고 性 選別的 出生에 대한 選好態度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性 選別的 出生 比率도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조선 시대 儒敎의 사학기관인 書院 數의 地域的 分布나 오늘날 宗教의 地域的 特性을 통해 嶺南地域이 다른 지역에 비해 儒敎의 傳統이 강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出生性比의 不均衡이 우리사회의 儒敎的 傳統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出生性比 不均衡을 緩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國民 弘報, 女性 地位 向上, 不法 醫療行爲에 대한 監視 및 處罰의 強化, 醫療人의 意識 改革을 통한 職業 倫理의 確立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성 지위의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嶺南地域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倍加되어야 할 것이다. 出生性比 불균형과 관련한 각종 법규의 개선은 中央政府에서, 그리고 홍보 및 의료인의 의식 개혁 및 감시활동을 통한 불법 의료 행위의 근절은 地方政府 및 地域社會가 주체가 될 때 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張英植·鄭宇鎭 博士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우리나라 출산력은 1984년 2.1 수준에 도달한 후 줄곧 人口代置 水準 以下를 유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인구분야의 당면과제로서 인구의 質的 向上과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出生性比의 不均衡이다.

출생성비는 일반적으로 출생여아 100명에 대한 출생남아수로 표시되며 시대 및 국가, 인구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80년 이후부터 차츰 높아지기 시작해서 1993년 현재 115.6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1993). 이는 세계 출생성비의 평균인 106 수준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이외에 최근에 男兒의 過剩 出生 現狀을 나타낸 나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보이고 있고, 같은 儒敎 文化圈인 中國(Gu & Li, 1994)과 臺灣(Chang, 1994)이지만 우리 나라에 비해 그 정도는 약한 편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少子女 價値觀과 男兒選好態度간의 乖離,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醫學技術의 發達 및 그 利用의 普遍化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이래 理想子女數가 2.0~2.2명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소자녀 가치관이 확립되었으나 아들선호 사상은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자녀를 낳으면서 그 안에서 아들을 두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발달 및 보급으로 인해 胎兒 性鑑別에 의한 性選別的 人工 임신중절의 이용가능성의 제고로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최근에 출생성비가 급격하게 높아진 저출산 국가의 출생성비의 특징으로는 出生順位 및 父母의 年齡이 높을수록 출생성비가 높고, 가족 단위에서의 子女의 性比는 그 다음 출산으로의 진행 및 출생성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조남훈·서문희, 1994;

Park & Cho, 1993; 이흥탁, 1987)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통된 특성 이외에 우리나라 성비의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地域的인 偏差가 심하다는 것으로 嶺南地域의 출생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성비가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의 성비 변동 양상을 보면 大邱의 출생성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慶尙北道, 慶尙南道, 그리고 釜山에서 출생성비가 약간의 時差를 두고 점차로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생성비의 지역적 차이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출생성비, 남아선호태도, 성 선별적 출산에 대한 태도 및 실제 性 選別的 出産의 지역적 차이를 알아보고, 이어서 地域 差異의 根本의 原因을 儒敎的인 傳統의 強度差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出生性比 不均衡에 대한 理解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政策的 意味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統計廳에서 생산한 人口動態申告 報告와 人口住宅總調查, 그리고 1991년과 1994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실시한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자료이다. 먼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출생성비의 지역별 불균형 차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아선호태도 및 性 選別的 人工 妊娠中絶에 대한 태도 및 실제 행태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地方自治制度 하에서는 地域的 特性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에서도 중앙에서 결정한 획일적인 사업보다는 地域的 特性을 반영한 접근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出生性比의 地域에 따른 차이는 곧 政策의 地域的 差別化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연구결과는 出生性比 不均衡의 緩和를 위한 地方政策 樹立의 基礎資料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地域別 出生性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出生性比의 특성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地域別 出生性比의 差異로서, 嶺南地域의 出生성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으며 또한 出生성비가 높아진 시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른다. 嶺南地域 중에서도 大邱地域의 出生성비가 일찍부터 높아졌고 이어서 慶北, 慶南 및 釜山 등 인접 지역의 出生성비가 일정한 時差를 두고 높아지는 양상으로, 마치 대구가 出生성비 불균형의 근원지인 것처럼 보인다.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의한 연도별, 시·도별 出生성비인 <表 1>을 보면 1993년 현재 전국의 出生성비는 115.6을 나타내고 있는데 大邱 125.0, 慶北 124.5, 慶南 121.7을 기록하고 있고, 釜山이 118.7로 다른 영남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역시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嶺南地域 이외에 대전, 충청북도, 제주도의 出生성비가 비교적 높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등 湖南地方과 서울, 경기, 인천 등 首都圈의 出生성비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出生성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구에서는 1985년부터 122~130의 높은 성비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慶北도 같은 기간에 120~131 수준을 유지해 왔다. 大邱와 慶北에 이어서 慶南과 釜山の 出生성비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慶南은 1985년이래 110~125의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釜山地域의 出生성비도 같은 기간 동안 慶南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훨씬 높아 112~119 수준을 보이고 있다(圖 1 참조). 出生성비의 증가가 大邱에서 시작되어 慶北, 慶南 및 釜山 지역으로 擴散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최근에는 서쪽 인접 지역인 충청지방으로도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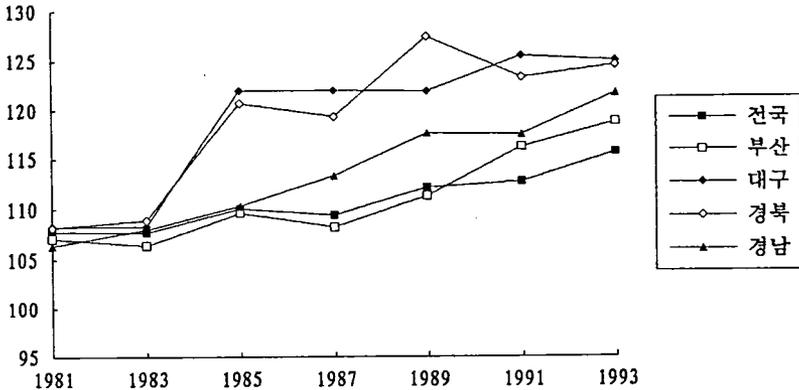
그런데 年 出生兒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年度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1993년 현재 出生성비가 높은 嶺南地域이 大邱 5.0%,

慶北 5.4%, 釜山 7.9%, 慶南 9.2%로서 전체 출생아의 27.6%가 경상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출생성비가 119.3인 대전은 2.8%이다(表 2 참조).

〈表 1〉 年度別 市·道別 出生性比(1980~1993)

시·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전국	103.9	107.8	106.9	107.7	108.7	110.0	112.3	109.4	113.6	112.1	116.8	112.7	114.0	115.6
서울	105.1	107.9	107.9	109.0	108.3	108.7	111.2	107.8	110.9	109.6	113.5	110.3	111.2	113.5
부산	104.3	107.1	106.8	106.4	105.8	109.6	112.7	108.2	112.3	111.3	118.6	116.2	117.3	118.7
대구	93.7	108.3	106.6	108.3	113.7	122.0	127.2	122.0	135.4	121.9	130.0	125.5	124.6	125.0
인천	96.5	107.5	104.5	106.9	106.4	108.7	110.5	105.8	109.9	107.3	112.3	108.4	107.9	112.1
경주	-	-	-	86.5	84.2	96.8	99.5	106.5	107.4	108.7	113.7	111.3	112.9	111.0
대전	-	-	-	-	-	-	-	-	107.8	122.6	122.9	113.6	114.9	119.3
경기	104.8	105.8	105.9	105.6	106.5	107.0	107.7	106.7	109.5	107.6	111.6	109.6	111.4	112.8
강원	100.8	107.2	106.3	106.4	107.6	109.0	107.3	105.9	109.1	110.0	113.7	110.2	111.7	115.9
충북	103.9	110.0	105.9	106.8	108.9	110.6	113.3	108.4	113.5	111.5	117.2	112.7	117.5	116.8
충남	102.7	108.8	107.2	106.3	110.8	109.5	110.5	109.6	114.5	110.7	117.1	112.7	116.2	114.5
전북	102.4	108.1	107.2	108.6	109.0	108.7	108.2	106.3	109.3	108.2	114.4	107.5	107.9	110.3
전남	103.1	109.7	107.7	108.5	110.2	106.4	111.4	108.1	112.3	110.1	114.4	110.8	110.3	113.5
경북	105.2	108.2	107.2	108.9	113.6	120.7	122.0	119.3	126.1	127.4	130.9	123.3	123.2	124.5
경남	104.5	106.4	105.7	108.0	108.3	110.3	114.8	113.3	119.5	117.6	124.9	117.5	120.6	121.7
제주	99.2	111.7	107.2	106.3	108.9	111.1	118.4	109.6	112.4	112.8	119.4	104.7	118.3	108.1

資料: 統計廳, 『人口動態統計年報』, 1980, 1985, 1990, 1993.



[圖 1] 地域別 出生性比 變化 推移

〈表 2〉 市·道別 出生兒數 百分率 分布¹⁾

市·道	1985	1990	1993
서울	24.9	26.0	24.5
부산	8.7	8.6	7.9
대구	4.6	5.1	5.0
인천	4.1	5.3	5.8
광주	0.1	2.7	3.1
대전	- ²⁾	2.4	2.8
경기	13.6	17.7	18.7
강원	3.9	2.9	2.7
충북	3.2	2.7	2.9
충남	6.6	3.3	3.1
전북	4.8	3.6	3.6
전남	8.2	4.1	3.7
경북	6.8	5.6	5.4
경남	9.1	8.8	9.2
제주	1.1	1.0	1.2
(N)	(657,142)	(646,367)	(702,546)

註: 1) 백분율은 소수점 두자리 반올림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2) 1% 미만임.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의 양상은 都市-農村 구도로 볼 때 도시에서부터 먼저 출생성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인구동태신고보고에 의하면 출생성비는 市部 115.3, 郡部 117.2(통계청, 1993)로써 도시보다 농촌의 출생성비가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인구총조사 결과에서 산출한 市部, 邑部, 面部의 0~4세 인구의 성비를 보면 1990년은 0세 인구의 성비가 면부 115.3으로 市部 및 邑部の 112.3, 111.1에 비해 높다. 그러나 이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深化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써 1985년 人口總調査시에는 0~4세 인구의 시부 성비가 면이나 읍보다 높았으며 1990년 조사에서도 2세 이상에서는 시부의 성비가 군부에 비해 높았다. 다시 말하면 현재로는 농촌의

출생성비가 도시보다 높지만 農村의 출생성비는 都市보다 늦게 높아지기 시작해서 도시보다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胎兒 性鑑別에 의한 選別的 出生을 가능하게 하는 醫療 利用에의 接近性이 높은 都市에서 시작해 農村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1980년대 초의 병원 분만 자료를 이용한 한 연구(Meng, 1983)도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都市의 男兒出生率이 농촌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1980년대 초에 도시로부터 性比 不均衡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19C 초까지는 농촌의 출생성비가 도시보다 높았으나 1925~'29년 인구총조사 자료분석 및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에 출생성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인구학자들은 産業化의 進行過程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産業化 以前에는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의 남아선호 정도가 도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구조가 농촌에서 성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촌의 출생성비가 높으나, 産業化에 따라 점차 이같은 性 選好意識이 사라져 산업화 성숙 시기에는 도시·농촌간의 出生性比의 差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Ciocco, 1938; 신성철, 1987). 그러나 意識構造가 어떻게 出生性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생성비와 출산순위와의 관계도 일반화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성비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성비 연구에서도 出生順位와 出生性比는 逆相關關係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 Cho, 1959). 그러나 출생성비가 높아지면서 출생순위와의 관계가 반대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상관의 정도는 大邱를 비롯한 嶺南地域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表 3>은 1993년 각 지역의 출생성비를 出生順位別로 제시한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어느 지역에서도 첫 출생에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은 大邱, 慶北, 慶南, 釜山의 순서로 出生性比의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 출생은 大邱, 釜山, 慶北, 慶南의 순서이며, 네 번째 이상의 출생에서는 釜山, 慶北, 大田, 慶南, 大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즉, 성비불균형이 지역적으로도 확산되지만 출생순위에 있어서도 앞 출생순위로 밀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상대적 앞 순위의 성 선별적 출산이 증가하면서 뒤 순위에서는 약간 낮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대전이 네 번째 출생순위에서 성비가 높다는 것은 성비 불균형 대열에 최근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임을 반영한다 하겠다.

<表 3> 地域別 出生順位別 出生性比(1993)

지역	1	2	3	4+	4	5+	전체
전국	106.6	114.9	206.5	251.8	253.4	246.3	115.6
서울	106.6	113.4	213.3	303.8	306.4	318.8	113.5
부산	105.6	120.0	330.0	418.5	383.1	533.3	118.7
대구	106.6	133.4	337.6	325.0	335.7	280.0	125.0
인천	107.7	109.4	186.7	247.2	241.5	300.0	112.1
광주	105.8	108.1	148.5	189.4	186.7	200.1	111.0
대전	110.8	113.0	265.0	363.4	384.8	275.0	119.3
경기	106.2	110.3	205.8	274.0	273.5	276.5	112.8
강원	109.8	108.8	190.0	228.7	212.5	275.8	115.9
충북	105.3	117.0	187.8	280.2	253.3	431.2	116.8
충남	107.4	109.4	156.5	233.9	239.1	234.1	114.5
전북	105.0	110.0	122.0	188.1	198.8	163.9	110.3
전남	107.9	108.1	149.6	148.9	139.8	171.0	113.5
경북	106.0	127.8	292.3	389.6	410.7	346.4	124.5
경남	106.4	124.1	277.1	337.6	351.3	400.0	121.7
제주	105.2	101.7	127.2	197.4	194.5	207.4	108.1

출생성비는 두 번째 출산에서 조금 높고 세 번째 이상의 출산에서 매우 높다. 그러나 세 번째 이상의 출산은 전체 출산의 7.8%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총출산의 50%를 상회하는 첫 번째 출생순위에서 性 選別的 出産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기대하는 우리의 출산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表 4 참조).

<表 4> 出生順位別 出生兒數 百分率 分布(1993)

지역	1	2	3	4	5+	전 체
전국	51.9	40.3	6.6	0.9	0.2	100.0(702,546)
서울	55.7	38.6	5.1	0.5	0.1	100.0(172,346)
부산	52.9	40.6	5.7	0.6	0.1	100.0(55,561)
대구	51.8	41.8	5.8	0.5	0.1	100.0(35,366)
인천	50.9	43.2	5.2	0.5	0.1	100.0(41,036)
광주	49.7	39.7	8.9	1.4	0.4	100.0(21,568)
대전	52.9	39.1	7.0	0.8	0.2	100.0(19,704)
경기	50.8	24.5	5.9	0.6	0.2	100.0(132,502)
강원	51.0	38.8	8.0	1.6	0.7	100.0(19,038)
충북	51.5	38.4	8.1	1.6	0.4	100.0(20,377)
충남	48.8	38.6	9.9	2.0	0.7	100.0(21,805)
전북	47.7	40.0	10.6	2.0	0.8	100.0(25,031)
전남	46.3	38.1	12.0	2.4	1.1	100.0(26,000)
경북	50.5	40.8	7.4	1.0	0.3	100.0(37,931)
경남	50.6	41.6	6.8	0.8	0.2	100.0(64,440)
제주	48.4	37.2	11.4	2.0	1.0	100.0(8,266)

註: 전국적으로 출생순위 미상이 57건이나 백분율에는 나타나지 않음.
 資料: 統計廳, 『人口動態統計年報』, 1993.

여기서 한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출생성비의 지역적 차이와 소자녀 규범과의 연계성이다. <表 4>를 보면 출생성비가 높은 嶺南地域의 세 번째 이상 출생 비율이 慶北에서 8.7%로 조금 높고 慶南은 7.8%

이며 大邱와 釜山은 6.4%, 6.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출생성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全北과 全南에서 세 번째 이상의 출산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는 出生性比의 不均衡이 결국은 강한 少子女觀과 맞물려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같은 출생성비 불균형과 소자녀 규범과의 관련성은 199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출산을 종결하였다고 사료되는 35~49세 부인의 지역적 평균 출산아 수가 특히 도지역의 경우 경기 및 제주를 제외하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정도와 그 순위가 일치하고 있으며, 역시 출생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光州, 全南, 全北地域의 35~49세 부인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表 5 참조).

〈表 5〉 地域別 15~49歲 既婚婦人の 平均 出生兒數(1990)

지역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전국	0.32	0.70	1.28	1.89	2.35	2.83	3.43
서울	0.28	0.62	1.15	1.76	2.13	2.48	2.92
부산	0.16	0.59	1.22	1.81	2.21	2.64	3.15
대구	0.21	0.58	1.21	1.84	2.28	2.71	3.20
인천	0.41	0.66	1.23	1.79	2.16	2.58	3.08
광주	0.27	0.67	1.33	2.17	2.56	3.06	3.67
대전	0.14	0.72	1.30	1.92	2.37	2.80	3.37
경기	0.36	0.69	1.25	1.81	2.23	2.70	3.27
강원	0.52	0.88	1.44	2.05	2.59	3.17	3.88
충북	0.40	0.81	1.50	2.07	2.60	3.11	3.81
충남	0.43	0.93	1.50	2.12	2.69	3.30	3.94
전북	0.38	0.91	1.54	2.17	2.78	3.40	4.12
전남	0.44	0.91	1.61	2.26	2.94	3.60	4.34
경북	0.21	0.71	1.35	2.02	2.60	3.15	3.84
경남	0.28	0.67	1.32	1.94	2.45	3.00	3.67
제주	0.41	0.83	1.44	2.10	2.64	3.16	3.72

資料: 統計廳, 『1990 人口住宅總調查 報告書』, 1992.

세 번째 이상 출생아 수의 비율이 높고 또한 평균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 지역의 출산 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출산감소 속도의 지역적 차이가 출생성비 불균형의 지역적 차이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表 6> 婦人年齡別 出生性比(1993)

지역	~24	25~29	30~34	35+	전체
전국	109.0	113.6	127.3	142.6	115.6
서울	107.0	111.6	120.8	134.6	113.5
부산	106.9	116.5	134.1	149.6	118.7
대구	111.3	121.9	144.5	189.9	125.0
인천	108.0	109.9	122.0	123.8	112.1
광주	102.3	110.7	120.3	130.8	111.0
대전	110.5	116.5	133.4	150.7	119.3
경기	105.7	110.9	124.4	139.0	112.8
강원	109.4	111.6	133.5	139.6	115.9
충북	107.0	115.2	134.4	160.4	116.8
충남	108.9	112.6	125.1	170.4	114.5
전북	106.3	108.9	116.5	133.8	110.3
전남	109.5	113.9	116.1	133.0	113.5
경북	111.8	122.5	147.2	164.5	124.5
경남	110.6	118.2	145.8	163.6	121.7
제주	104.5	106.6	111.9	119.7	108.1

資料: 統計廳, 『人口動態統計年報』, 1993.

한편 부모의 연령과 出生性比의 關係에 있어서도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출생성비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까지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Kang & Cho, 1959; Meng, 1983; 장창곡, 1982). 그러나 性比에 대한 人爲的인 造作으로 인해 달라지게 되는데, <表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母의 연령에 따라 출생성비가 높아

지는 正相關關係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24세 미만 부인의 出生性比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나 25~29, 30~34, 35~39세 부인의 出生性比는 지역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25~29세에서는 大邱와 慶北이 120을 넘고 있고, 慶南이 118.2, 釜山이 116.5이다. 30~35세 출산은 大邱, 慶北, 慶南에서 140을 넘고 있고, 釜山이 江原, 忠北, 大田 등과 같이 133~134 수준이다. 35세 이상은 大邱 189.9, 慶北, 慶南, 忠南, 忠北이 160~170 수준이고 釜山, 大田이 15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結婚 年齡이 상승하면서 특히 도시에서 24세 미만 부인의 출생아수 비율이 낮아지는등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¹⁾. 부인연령에 따른 出生性比의 차이는 연령 자체가 변수로 작용하겠으나 出生順位와 出生性比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男兒選好關聯 態도의 地域差異

出生性比 不均衡의 지역 차이는 남아선호 태도의 지역별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1991년 및 1994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資料의 標本數가 많지 않고 標本 抽出時 郡部와 市部를 표본 추출 기준으로 삼았다는 限界點을 갖고 있으나, 지역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기 위한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사료되었다. 남아선호 태도는 都市化 程度가 주요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大都市와 道로 나누어 大邱, 釜山 및 其他 市, 慶南, 慶北 및 其他 道로 구분해서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1993년 총출생아의 출생부인 연령분포는 24세 미만 24.1%, 25~29세 52.7%, 30~34세 19.6%, 35세 이상 3.6%임.

<表 7>은 '이상 자녀의 성을 구별하겠다'는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 자녀의 성을 구별하겠다'는 응답은 1991년의 54.5%에서 1994년에는 43.3%로서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대구와 부산은 두 조사간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기타 시는 이보다는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구별하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낮아졌다. 대체로 大邱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그리고 慶北, 慶南 지역은 기타 도 지역보다 높은 성구별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釜山은 1991년에는 大邱는 물론 기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1994년에는 기타 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7> 理想 子女의 性を 區別하겠다는 婦人 比率

응답비율	대도시			도			전체
	대구	부산	기타시	경북	경남	기타도	
1991년 (전체 응답자수)	48.1 (435)	39.8 (677)	43.3 (2,905)	87.8 (512)	73.1 (585)	63.3 (2,348)	54.5 (7,462)
1994년 (전체 응답자수)	47.1 (314)	37.4 (366)	37.4 (1,896)	58.6 (236)	50.0 (467)	46.1 (1,986)	43.3 (5,176)

註: 이상 자녀 성구별에 대한 설문지 선택항목이 '구별하겠다', '구별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1.0% 내외임.

資料: 各年度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또한 아들의 必要性에 대해서도 1991년 조사에 비해 1994년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고, '없어도 상관없다' 및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비율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남아선호태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 및 도 지역에서 골고루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地域的으로는 理想 子女 性區別 態度에서와 같이 두 조사 모두 大邱는 기타 대도시보다 높고 慶北과 慶南은 기타 도에

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釜山은 기타 시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表 8 참조). 이렇게 볼 때 釜山의 경우 남아선호태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을 보면 1991년에는 大邱地域보다도 낮았으며 1994년에는 大邱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釜山이 결코 男兒選好態度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강도만 약간 희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中間的 應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表 8〉 아들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百分率 分布

태도	대도시			도			전체
	대구	부산	기타시	경북	경남	기타도	
(1991)							
필요하다	33.4	30.2	31.7	58.6	56.2	47.9	40.5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38.3	44.0	35.8	22.1	19.9	23.7	30.7
없어도 상관없다	28.3	25.9	31.7	17.0	22.8	27.6	28.0
모르겠다	-	-	0.7	2.2	1.1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34)	(676)	(2,902)	(512)	(582)	(2,342)	(7,448)
(1994)							
필요하다	27.0	20.4	22.8	40.4	31.0	27.9	26.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31.4	37.5	31.8	34.3	41.2	35.0	34.3
없어도 상관없다	40.6	41.5	45.0	25.4	27.2	36.7	38.9
모르겠다	1.0	0.7	0.5	0.4	0.6	0.5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15)	(366)	(1,896)	(234)	(467)	(1,897)	(5,175)

資料: 各年度 出生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그런데 이같은 점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理由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같이 '대를 잇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大邱는 기타 시보다 높고 慶北과 慶南은 기타 도지역보다 높

다. 이에 비해 釜山은 대구는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가장 근대화된 태도라고 생각되는 '家庭의 調和와 和睦을 위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구보다는 약간 높으나 기타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대신 '마음 든든하므로'의 비율이 대구 및 기타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表 9 참조)²⁾.

<表 9>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理由 百分率 分佈

아들 필요 이유	대도시			도			전체
	대구	부산	기타시	경북	경남	기타도	
대를 잇기 위해서	43.3	29.7	31.8	60.2	47.4	43.1	40.9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0.8	4.2	1.0	0.6	1.8	1.0	1.3
노후를 위해서	8.7	4.8	4.8	3.7	8.3	7.9	6.5
마음이 든든하므로	38.6	50.4	37.9	25.1	26.6	30.9	33.7
가정의 조화와 화목을 위해서	7.1	10.3	23.3	10.3	15.7	16.0	16.8
기타	1.4	0.6	1.2	-	0.2	1.1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45)	(203)	(920)	(300)	(327)	(1,120)	(3,014)

資料: 1991年度 出生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전반적으로 볼 때 남아선호태도가 大邱는 기타 시에 비해 높고 慶北 및 慶南은 기타 지역에 비해 높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은 남아선호 태도 자체가 도시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出生性比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大邱보다 慶北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釜山의 남아선호태도는 大邱보다는 약하지만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조사는 1994년 조사시에는 이유별로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 중요성의 비중이 드러나는 1991년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IV. 胎兒 性鑑別에 따른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의 地域差異

태아에 대한 성감별 결과, 태아가 원치 않는 성일 경우 人工妊娠中絶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 부인의 28.6%가 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表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대 도시 지역보다는 도 지역, 그리고 영남 이외의 지역보다는 嶺南地域에서 태아 성감별시 태아의 성이 원치 않는 성일 경우 人工妊娠中絶을 수용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다.

<表 10> 願치 않는 性의 子女를 妊娠한 境遇 人工妊娠中絶 受容 態度

태도	대도시			도			전체
	대구	부산	기타시	경북	경남	기타도	
해야 한다.	28.5	28.3	19.6	55.0	45.3	30.0	28.6
해서는 안된다	57.5	61.8	72.4	39.7	43.5	59.5	62.0
모르겠다	14.0	9.8	7.9	5.3	11.2	20.5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31)	(671)	(2,896)	(512)	(580)	(2,325)	(7,416)

資料: 1991年度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기타 시가 19.6%인 반면에 大邱와 釜山이 모두 28% 수준으로 나타났고, 도 지역은 기타 도가 30%인데 비해서 慶北과 慶南이 각각 55%, 4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釜山地域도 남아선호태도에서와는 달리 大邱와 유사한 응답률을 보여서 釜山이 실제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열망은 大邱 못지 않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嶺南地域과 그 이외 지역의 성 선별적 출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규명하고자 로지트 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일반적으로 남아선호태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로 검증된 변수들이다. 과거 출산력 조사에서 남아선호 태도는 주로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이상자녀의 성구별 태도로 측정하여 왔는데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주지역, 부인의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자녀수에 따라 이들 태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홍문식 외, 1994; 김남일·최봉호·이삼식, 1990), 아들유무, 부인의 종교, 남편 형제순위(조남훈·서문희, 1994)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변수와 근대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근대성 변수를 추가한 이유는 영남지역이 산맥으로 둘러 쌓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특성이 출생성비와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변수 중에서 연령, 교육기간, 자녀수, 근대성 정도를 연속변수로, 나머지 변수는 모두 1, 0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地域變數는 市部, 大都市, 嶺南地域을 각각 1로 처리하였고, 宗教는 카톨릭과 기독교를, 그리고 男便이 장남이나 외동인 경우를 각각 1로, 그 이외를 0으로 처리하였다. 近代性 程度를 나타내는 변수는 要因分析을 통해 共通要因으로 판명된 여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남편이나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와 여자의 행복에 대한 태도, 부부간 교육정도 차이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응답에 요인계수에 따라 加重值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해서 사용하였다³⁾. 이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간의 相關性은 로지트 回歸分析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⁴⁾.

분석결과를 보면 <表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全體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嶺南地域 및 其他 地域으로 구분해서 로지트 回歸分析을 한

-
- 3) 근대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변수의 요인계수는 여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37, 남편이나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와 여자의 행복에 대한 태도 .40, 부부간 교육정도 차이에 대한 태도 .40, 이혼에 대한 태도 .41이다.
 4) 독립변수들간의 단순상관계수는 지역변수중 시부-군부 변수와 대도시-도 변수가 .53, 부인연령과 자녀수가 .63으로 비교적 높았고, 그 이외는 모두 .40 미만이었다.

結果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역변수 3개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嶺南地域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변수의 T값이 제일 컸다. 이는 居住地가 도시나 농촌이나, 또는 대도시인가 도인가 및 어떤 요인보다도 지역이 嶺南地域이나 아니냐가 관련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사회적 변수 중에서는 婦人의 宗教가 기독교 및 카톨릭인 부인이 그렇지 않은 부인에 비해서 人工 임신중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낮은 쪽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인구학적 변수로는 子女數, 아들 有無, 그리고 近代性 變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농촌, 도 지역 및 嶺南地域에 살수록, 기독교 및 카톨릭 신자가 아닐수록, 자녀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아들이 없을수록, 근대성 정도가 낮을수록 태아 성감별에 의한 성 선별적 人工妊娠中絶을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높다.

〈表 11〉 不願 性 妊娠時 人工妊娠中絶 受容 態度에 관한 分析:
嶺南地域과 그 以外 地域 比較

독립변수	전체			영남지역			영남 이외 지역		
	회귀계수	S.E.	T값	회귀계수	S.E.	T값	회귀계수	S.E.	T값
지역1(1=영남지역)	.3131	.0290	10.81**	-	-	-	-	-	-
지역2(1=시부)	-.1004	.0371	-2.70**	.0122	.0662	.18	-.1410	.0457	-3.09**
지역3(1=대도시)	-.2363	.0333	-7.10**	-.4184	.0565	-7.40**	-.1573	.0420	-3.74**
부인연령	.0032	.0026	1.21	-.0008	.0046	-.17	.0035	.0032	1.10
부인교육연수	-.0038	.0050	-.77	-.0350	.0092	-3.83**	-.0072	.0060	-1.19
부인종교(1=기독교·카톨릭)	-.1949	.0321	-6.06**	-.2038	.0636	-3.20**	-.2015	.0375	-5.37**
남편형제순위(1=장남·외동)	-.0283	.0275	-1.03	-.0404	.0476	-.85	-.0266	.0340	-.78
자녀수	.1205	.0160	7.54**	.1361	.0287	4.74**	.1211	.0196	6.19**
아들유무(1=유)	-.0666	.0365	-1.82*	-.0548	.0642	-.85	-.7616	.0445	-1.71
근대성 정도	-.0251	.0139	-1.81*	-.0108	.0239	-.45	-.0296	.0172	-1.71
절편		4.51			5.16			4.40	
적합도 $X^2(df)$		7032(7027)	p=.479		2100(2088)	p=.422		4961(4930)	p=.552

註: ** p<.01, * p<.05.

資料: 1991年度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한편 嶺南地域과 그 이외의 지역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嶺南地域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 嶺南地域을 대도시와 도로 구분한 경우 地域變數, 婦人 宗教, 子女數는 동일하게 영향을 주지만 도시·농촌의 구분, 아들 유무 및 근대성 정도는 전혀 영향이 없고, 그 대신에 婦人의 教育程度 변수가 有意한 影響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嶺南地域에 만연되어 있는 性 選別的 出產 選好態度는 教育水準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近代性 變數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영남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回歸係數가 매우 낮아졌고 기타 지역의 경우도 統計的 有意性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嶺南地域이 전반적으로 保守的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면 실제로 出生性比가 높고 남아선호 및 성 선별적 출생을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성 선별적 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嶺南地域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아로 판명되면 人工妊娠中絶로 임신을 종결하는 비율이 높아서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성 선별적 출생의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994년 조사에서 妊娠時 胎兒의 性を 검사해 본 적이 있었다는 임신의 수는 1,308건이었고, 그중 아들로 판명된 경우가 709건, 딸로 나타난 경우가 598건이었는데, 아들로 판명된 경우에는 3.2%만이 人工妊娠中絶로 妊娠을 終結한 반면에, 딸로 판명된 임신은 17.4%가 人工妊娠中絶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大邱, 慶北地域은 태아가 아들인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이 9.4%이고, 딸인 경우는 42.2%가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釜山, 慶南은 각각 아들인 경우 2.0%, 딸인 경우 18.0%가 인공임신중절을 받았다고 해서 기타 지역의 2.0%, 9.2%와 비교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하였다. 더욱이 大邱地域은 아들로 판명난 경우에도

9.4%가 人工妊娠中絶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서 性 選別的 出産이 꼭 특정한 性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유추케 하였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소자녀관과 남아선호관의 괴리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태아 성감별 결과에 따른 임신중결 방법은 출생순위나 기존 자녀의 성 및 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表 12〉 地域別 胎兒 性鑑別 結果에 따른 妊娠結果 百分率 分布

임신결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기타 지역			전 체		
	남아	여아	전체									
정상출산	88.7	57.8	75.1	94.2	79.0	87.5	97.4	90.0	93.8	94.6	81.1	88.4
인공임신중결	9.4	42.2	23.8	2.0	18.5	9.3	2.0	9.3	5.5	3.2	17.4	9.7
자연유산·사산	-	-	-	1.0	0.4	0.8	-	-	-	0.5	0.3	0.4
현재 임신중	1.9	-	1.1	2.7	2.1	2.5	0.6	0.7	0.7	1.8	1.3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6)	(83)	(189)	(295)	(233)	(528)	(305)	(281)	(586)	(709)	(598)	(1,308)

資料: 1994年度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V. 出生性比 不均衡의 地域差異와 儒敎的 傳統의 關聯性

본 연구에서는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통해서 嶺南地域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생성비가 높음을 제시하였고, 또한 출산력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남아선호태도가 강하며, 性 選別的 出産을 수용하는 태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아의 性別 檢査結果 아들이면 출산하고 딸이면 人工妊娠中絶로 임신을 終結하는 비율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地域的 差異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出生性比의 직접적 增加 原因이 무엇이든간에 여기에는 강한 男兒 選好思想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강한 男兒選好思想은 傳統的인 儒敎 文化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적 문화전통 하에 있는 中國과 臺灣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산관련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같은 東北亞에 위치하면서도 문화가 다른 日本에서는 낮은 출산수준에도 불구하고 전혀 出生性比 不均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 할 수 있다.

儒敎는 孔子를 始祖로 한 中國 고래의 政敎一致 學文을 받드는 敎로써 일종의 倫理的 政治學이며 동양을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다. 儒敎는 三國時代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특히 조선시대에 抑佛崇儒政策을 펴면서 17세기부터는 유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사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傳統的 家族價値觀에서는 仁을 중요시 여겨 이것이 곧 孝요, 悌라 하였으며,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여 모든 것이 가족적 윤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父, 母, 兄, 弟, 妻, 子의 六親을 강조하여 여기에서 우러나는 愛情感을 사회질서의 結合原理로 삼았던 것이며, 효 사상과 六親을 연결하는 고리로써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초시간적인 관념적 집단으로서의 「집」에 대한 價値를 극대화하였던 것이다. 집을 조상으로부터 받아 어떻게 존속, 발전시켜서 子孫에게 繼承하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이고 가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초월하는 최대의 가치였던 것이다(최재석, 1965:223). 이로 인해 家族, 家系가 강조되면서 長子 중심으로의 가계계승 전통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아들로 代를 이어가려는 男兒選好態度 및 이로 인한 성비불균형도 결국은 이러한 傳統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出生性比 不均衡의 지역적 차이가 儒敎的 傳統的 強度가 지역적으로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고 가정할 수 있고, 儒敎的 傳統的 強度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전통의 강도를 반영하는 자료로써 먼저 朝鮮時代 書院의 數 分布를 들 수 있고, 간접 자료로는 유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宗教 分布의 지역적 차이를 들 수 있다(정창수·김신일, 1993:141).

書院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정책을 쓴 조선조에 고려의 사원을 대신 하여 조선 중기부터 보급된 민간 私學機關으로,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 書院도 경상도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서원의 수도 경상도 지역에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서원의 지역 분포는 1864년 大院君의 書院 撤廢令 이후와 이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철폐령 이전의 705개 서원 중 57%에 해당되는 405個의 書院이 慶尙道 지역에 있었으며, 인위적인 철폐령 후 14개만이 남게 되지만(表 13 참조) 京畿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이다⁶⁾.

〈表 13〉 地域別 朝鮮時代 書院의 數

시 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기타	계
서원 철폐령 이전 ¹⁾	39	97	150	405	14	-	705
서원 철폐령 이후 ²⁾	12	5	3	14	3	10	47

資料: 1)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1990; 정창수·김신일, 1993에서 개인용함.

2) 이홍식 편, 국사대사전, 박영사, 1987.

- 5) 서원의 수는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경상북도 연주군 순흥면에 고려의 학자 안향을 모시는 백운동 서원을 지은 이래 계속 증가하여 선조때 124개로 늘어나고 1864년 이전에는 700여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서원이 붕당을 일으키고 당쟁에 가담하며 양민을 토색하는 등 폐해가 일자 대원군 섭정때인 1864년에 서원 철폐령을 내려 47개만을 남기고 모두 없애도록 한다(이홍식 편, 1987).
- 6) 정창수와 김신일(1993)은 철폐령 이후의 서원 분포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인위적인 철폐 이후보다는 그 이전의 수가 더 유교적 전통의 강도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表 14>는 1985년도 인구총조사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종교의 지역적 분포인데 제주도가 예외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성비불균형의 지역차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영남지역의 불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반면에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表 14> 地域別 宗教人口比率(1985)

지역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¹⁾	계	종교인구비율
전국	46.9	37.7	10.8	4.6	100.0	42.6
서울	36.9	47.8	13.1	2.2	100.0	49.9
부산	67.7	21.9	8.0	2.4	100.0	46.1
대구	60.1	24.5	12.7	3.7	100.0	45.8
인천	30.5	49.7	17.0	2.8	100.0	43.9
경기	38.6	42.7	12.4	6.3	100.0	44.8
강원	51.8	33.4	9.8	5.0	100.0	36.6
충북	52.6	32.3	12.0	3.1	100.0	33.5
충남	45.3	39.5	9.3	5.9	100.0	39.0
전북	24.4	57.9	10.6	7.1	100.0	33.3
전남	32.1	44.4	9.9	14.6	100.0	32.9
경북	63.2	24.8	6.6	5.4	100.0	41.3
경남	71.5	18.1	6.4	4.0	100.0	40.5
제주	69.0	17.8	9.3	3.0	100.0	41.6

註: 1) 기타에는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88; 1985 총주택 및 인구센서스 자료.

우리나라의 이같은 종교 분포의 지역차이에 대해서 이를 유교적 전통 강도의 지역적 차이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종교분포 자체는 儒敎의 傳統의 지역적 강도 차이로 인해 男兒選好 및 性比不均衡의 지역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라 하겠다. 기독교 및 카톨릭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이상자녀에 대한 성구별 태도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판명되었고(서문희, 1992:82), 앞의 <表 11>에서 원치 않는 성을 임신한 경우 人工妊娠中絶을 받겠느냐는 태도에 대한 로지트 回歸分析에서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교 분포의 지역차이와 유교적 전통 강도의 지역적 차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신일·정창수(1993)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⁷⁾.

VI. 結論 및 政策課題

1993년 현재 115.6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嶺南地域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출생성비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은 출생성비가 낮은 지역에 비해서 출산감소 속도가 비교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나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소자녀 규범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91년도 및 '94년도 출산력 조사 자료를 통해서 영남지역은 男兒選好觀이 강하고 性選別的 出産에 대한 선호태도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 선별적 출산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조선시대 유교의 사학기관인 書院 數의 地域的 分布나 오늘날 宗教의 地域的 特性을 통해 영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出生性比의 不均衡이 우리사회의 儒敎的 傳統에 깊은 뿌리를 두

7) 고려시대에 국가종교였던 불교가 조선조에는 배척되었다고 해도 사대부 집안에서 조차 가족의 吉凶禍福을 비는 불사가 이루어지는등 조선의 종교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상호 기능간의 적절한 보완을 하면서 공존했었다는 것은 의심할수 없다. 조선의 붕괴와 함께 유교가 국가종교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자 유교를 숭상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나 천주교 등 사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불교는 상당한 친화력을 가질 수 있었고, 따라서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려는 강도가 강할수록 기독교나 천주교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불교를 택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비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社會 및 學校教育을 통해 국민에 대한 弘報 및 教育의 強化, 家族法 改定, 雇傭平等法 改善, 託兒施設의 확충을 통한 女性 社會活動 支援, 男女 役割에 대한 固定觀念의 脫皮 등 女性地位 向上을 위한 각종 措置, 醫療人의 意識改革 및 醫療倫理教育의 強化, 不法 醫療에 대한 監視體系의 強化 및 自律規制 등이 논의되었으며(조남훈·서문희, 1994),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出生性比 不均衡의 심각성을 인식한 政府 및 關聯 團體에서 이를 緩和하고 解消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점을 政策課題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무엇보다도 長子와 아들을 우선으로 하는 儒敎의 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女性 地位의 向上과 관련된 意識이나 制度를 改善하려는 노력이 強化되어야 한다. 사실 여성 지위의 향상을 위한 조치도 여러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보아왔다. 우선 女性의 雇傭 側面에서는 1995년 7월 남녀고용평등법을 다시 개정하여 여성이 출산, 결혼, 임신을 이유로 승진 및 교육, 배치시 차별 받지 않도록 하였고, 男性도 育兒休職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성이 용모나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고용을 제한하는 사업주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 9월 北京에서 열린 世界 女性大會를 계기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女性雇傭 割當制 및 加算制가 도입되어 앞으로 많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학계에서는 여성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兩性平等基本法을 제정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95. 7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또한 그 동안 각종 교육에서 나타난 固定된 性役割도 교과서 개편과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제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法律이다. 1989년 家族法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1989년 개정 당시 당초에는 포함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가장 유교적인 同姓同本婚姻禁止法은 물론 戶籍法의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배경숙, 1990). 儒敎的 傳統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根本을 형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變化를 원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發展的인 變化에 대한 受容態度가 기대된다. 현실성과 합리성을 무시한채 무조건적으로 父系를 중시하는 풍토, 그리고 딸은 크면 戶籍까지 파 가지고 남의 집으로 가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男兒選好의 拂拭은 불가능하다. 가장 많은 진전을 본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 하겠다.

둘째는 地方政府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性比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다. 1995년 地方自治制度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각 地域社會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통해 지하철 광고 및 자체 홍보용 월간지를 이용하여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신부감 부족 현상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동 협회 嶺南地域 各 支部에서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男兒選好態度가 강하고 出生性比 不均衡이 심하다는 地域의 狀況을 부각시키면서 홍보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醫療法 및 醫療法 施行令을 改定하여 1994년 1월부터 不法 胎兒 性鑑別時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處罰 條項을 強化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태아 성감별로 인한 의료인의 처벌은 1988년 이후에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지역 地方政府에서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監視活動을 강화해야 하겠다. 최근에는 民間醫療團體인 대한의학협회에서는 '95 2월부터 자발적인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醫協 산하에 醫療改革推進委員會를 두어 불법적 胎兒 性鑑別 行爲를 적발,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95 2월 4일자 동아일

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각 병의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胎兒 性鑑別의 根絶을 촉구한 바 있다('95 8월 16일자 동아일보). 따라서 각 의료관련 단체의 嶺南地域 시·도 지부에서는 중앙의 지시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임을 의식하고 각 地域社會 내에서 불법적 의료를 근절시키려는 운동을 주체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각종 법률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中央政府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 법의 준수 및 의료인의 자발적인 태아 성감별 행위 근절이나 홍보는 地方의 特性을 고려하여 地方單位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參 考 文 獻

- 공세권·조애저·김승권·손성희, 『한국에서의 출산형성과 출산 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김일현·최봉호·이삼식, 「남아선호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 『보건사회논집』, 제10권 제1호, 1990, pp.56~82.
- 김태현·주학중, 「남녀 인구의 불균형 추이와 사회문제의 전망」, 인구문제연구소, 1994, mimeo.
- 배경숙, 「개정가족법에 관한 법학적 고찰(II)」, 『가족학 논집』, 제2집, 1990, pp.205~209.
- 서문희, 「한국 부인의 자녀관 결정요인」, 『1991년 출산력 조사 특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신성철, 「우리 나라 출생아 성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제12권 제1호, 1987, pp.30~40.
- 이흥식 편, 『국사대사전』, 박영사, 1987.
- 이흥탁, 「남아선호가 가족규모 및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장창곡, 「제2차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정창수·김신일,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7집 여름호, 1993, pp.117~151.
- 조남훈·서문희,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지하용·박재영, 「종합병원 출산아의 성비에 관련된 요인」,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1988, pp.67~76.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1992
- ,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66.
- Chang, Ming-cheng, "Sex Preference and Sex Ratio at Birth: The Case of Taiwan",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UNPF-KIHASA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sues Related to Sex Preference for Children in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Dynamics in Asia, Seoul, Korea, 21~24 Nov. 1994.
- Ciocco, A., "Variation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the United States", *Human Biology*, 1938, pp.10~36.
- Garfinkel, J. and S. Selvin,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ge and Birth Order and the Human Secondary Sex Ratio",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976, pp.8~113.
- Gu, Baochang & Yongpiny Li, "Sex Ratio at Birth and Son Preference in Chin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UNPF-KIHASA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sues Related to Sex Preference for Children in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Dynamics in Asia, Seoul, Korea, 21~24 Nov. 1994.

- Hull, "Recent Trend in Sex Ratio in Birth in China",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Vol.16, 1990, pp.63~83.
- James W. H., "The Sex Ratio of Oriental Births", *Human Biology*, Vol.12, 1985, pp.485~487.
- Kang, Yung-sun & Wan-kyoo Cho, "The Sex Ratio at Birth of the Korean Population", *Eugenics Quarterly*, Sept. 1959, pp.187~195.
- Meng, Kwang-ho,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Secondary Sex Ratio: Epidemiologic and Demographic Consideration", Ph.D. dissertation, Seoul Catholic Medical College, 1983.
- Noviski, E., "The Dependence of the Secondary Sex Ratio in Humans on the Age of Father", *Science*, 1953, pp.117~531.
- Park, Chai-bin & Nam-hoon Cho, "Gender Preference and Sex Imbalance in the Popula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Nation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UNESCAP-KIHASA International Seminar on Consequences of Replacement and Below Replacement Level Fertility in East and South-East Asia, Seoul, Korea, 29 Nov.~2 Dec. 1993.
- UN, *Demographic Yearbook*, 1990.

Summary

Area Differentials of Sex Imbalance in Birth

Moon-Hee Suh

Owing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strong population control programme, fertility has precipitously declined below the replacement level in Korea despite a strong adherence to the attitude of son preference during last three decades. However, a new demographic phenomenon of a distorted sex ratio at birth has emerged, especially since 1985, resulting in a sex ratio of 115.6 in 1993 with severe area differentials. Youngnam area, the southeast area of Korea which consisted of two large cities and two provinces, showed the highest sex ratio at birth: Dague 125.0, North Kyougsang Province 124.5, South Kyougsang Province 121.7, Pusan 118.7. The sex imbalance in birth began in the second largest city in this area, Dague, and has diffused to neighboring rural areas, North and South Kyougsang Province. Recently, the sex ratio at birth in Pusan, the largest city in this area, began to increase.

An analysis of national survey data showed that in the areas with the most distorted imbalance, people not only have a stronger preference for sons and more favoring attitude toward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but also actually have more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s after checking the sex of the fetus. This analysis proved that the sex imbalance is being caused by means of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s after checking the sex of the fetus.

Due to the belief that the root of son preference and sex-selective birth lies in the Confucian tradition, we hypothesized

that the areas which showed the highest sex imbalances at birth have a stronger Confucian tradition as compared to other areas. In fact in Youngnam area there were many private Confucian educa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Choson dynasty.

Confucianism was the national religion during the Choson dynasty for 500 years. Confucianism teaches that family has the most important value, and the family provide the basic structure for social and national arrangement. Moreover, the family lineage must be passed down through the first son. Recently, of course, the value system has been modernized considerably, but the tradition of giving priority to sons has remained not only in customs but also in laws.

Recommendations for future policies to alleviate the sex imbalance at birth are as follows: 1) The communication and education through mass media or group education needs to be reinforced in order to inform the public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sex selected birth and induced abortion following sex checking; 2) As sex imbalance is mainly due to the attitude of son preference, measure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women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The Family Law need to be more revised for the equal status of both sexes and the law of equal employment of women need to be kept and further improved; 3) Self-reform movement among physicians or through medical associa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illegal medical behavior; 4)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 in medical college curricula or job training courses needs to be reinforced; 5) The inspection and punishment of illegal medical services must be reinforced.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in Youngnam area should make more efforts to decrease the son preference attitude and sex selective birth.